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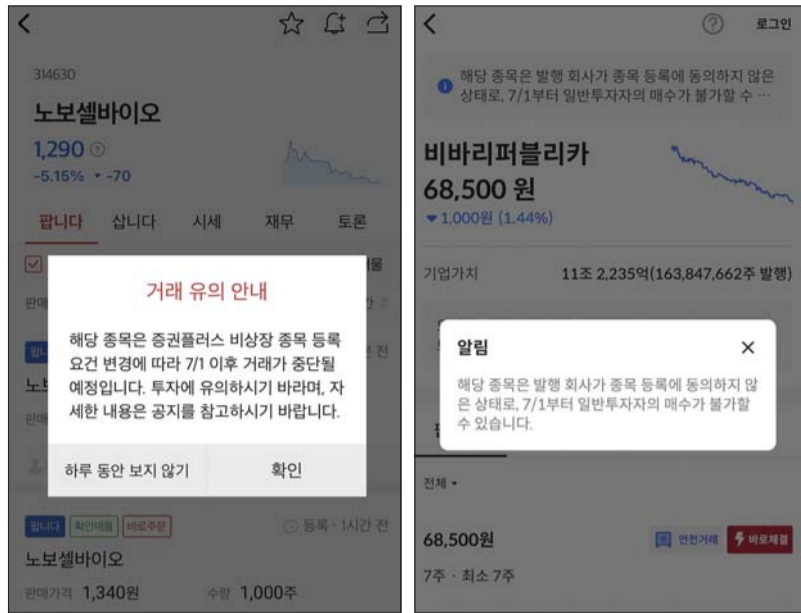
투자자 보호 못하는 비상장株 434개 종목 ‘거래 아웃’

금융위, 증권플러스 등 플랫폼 2곳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년간 연장 재무요건 불충족엔 플랫폼거래 중단

오는 7월부터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에서의 거래 종목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원회가 플랫폼 2곳에 대해 배타적 운영권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를 주문하면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피에스엑스의 ‘서울거래 비상장’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재무요건을 불충족한 기업에 대해 플랫폼 내 거래를 중단할 예정이다. 비상장주식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4월 금융위는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에 대해 혁신금융



증권플러스 비상장(왼쪽)과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일정 종목에 대해 7월 1일 이후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각사

서비스 지정을 향후 2년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인가 없이도 주식거래를 중개할 수 있게 됐으나,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당시 금융위는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소인 금융투자협회 K-OTC 수준 이상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는 457개 종목, 서울거래 비상장에서는 200여개의

종목을 사고팔 수 있다. 22일 기준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273개 종목,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161개 종목이 거래 가능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절반 이상 종목이 거래가 정지되는 셈이다.

증권플러스비상장의 경우 거래 상위 5종목(▲두나무 ▲노보셀바이오 ▲지엔티파마 ▲유라클 ▲블루에이치투) 중 3종목(▲노보셀바이오 ▲지엔티파마 ▲블루에이치투)이 거래 중단을 예고했다. 서울거래 비상장의 경우 상위 5종목(▲비바리퍼블리카 ▲OCI스펙셜티 ▲엔에스튜디오 ▲케이뱅크 ▲두나무) 중 4종목(▲비바리퍼블리카 ▲OCI스펙셜티 ▲케이뱅크 ▲두나무)이 해당한다.

특히 일부 종목의 경우 특정한 플랫폼에서만 거래가 가능해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두나무의 경우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는 거래가 가능한 반면, 서울거래 비상장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이어 거래 중단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매도만 가능해진다. 전문투자자의 경우 일반투자자보다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투자자를 말한다.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이 1년 이상 등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발행 회사가 거래 동의를 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발행 기업이 등록 동의를 제출할 경우 매수 제한이 해제된다”며 “(오는 7월 1일) 제도 시행 전 기업등록 동의를 받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 전 장외주식을 선점한다는 점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커졌다”며 “주식시장과 기업공개(IPO) 시장이 약세장에 접어들며,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LH, 고령자·다자녀 가구 임대주택 공급

총 2500호 내달 8일까지 신청·접수 수도권 1.2억, 광역시 8천 만원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다자녀 가구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오는 29일부터 고령자용 전세 임대주택 2500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6월14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 기간은 내달 8일까지다.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 8만 이

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LH는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2000호에 대한 신청·접수도 실시하고 있다.

공고일(6월13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

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수도권은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는 1억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신청은 내달 1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는 9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노영봉 LH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주택 공급이 고령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 실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대우건설 ‘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 분양

내달부터 총 644세대 공급

대우건설이 오는 7월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성봉리 일원에 ‘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146㎡, 총 644세대로 공급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371세대 ▲84㎡B 130세대 ▲84㎡C 29세대 ▲110㎡A 64세대 ▲110㎡B 56세대와 펜트하우스인 ▲121㎡P 2세대 ▲146㎡P 2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 내에는 입주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실 등 입주자 건강을 위한 공간과 푸른도서관(북카페),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자녀를 위한 공간들이



‘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 조감도. /대우건설

마련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음성 기업복합도시 내에 조성되는 2500여 세대 ‘푸르지오’ 브랜드 타운을 완성하는 마지막 분양 단지”라면서 “충북 음성군에 예정된 다양한 개발호재로 미래 가치가 높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코난 서치’ 공공기관 점유율 51% 달해

IPO 간담회

AI 소프트웨어 ‘코난 테크놀로지’

독자기술로 차별화 AI 서비스 제공 5년 이상 장기고객 매출비중 55%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코난테크놀로지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22일 코난테크놀로지는 서울 여의도에서 온라인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핵심 경쟁력과 코스닥 상장 이후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코난테크놀로지는 자연어 처리 사업을 시작으로 인공

지능의 원천기술인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기술력을 다진 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확보해 인간의 언어와 영상 속 의미를 넘어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심층 텍스트 검색과 분석은 물론 영상 및 음성 기술 모두를 아우른 유일한 기업이다.

주요 사업은 크게 자연어를 처리하는 ‘AI 포 텍스트(AI for Text)’와 인공지능 기술로 영상을 분석하는 ‘AI 포 비디오(AI for Video)’로 나뉜다. AI 강화 검색과 분석, 챗봇 그리고 AI 기반 영상 및 음성 처리 제품들로 구분되며 공급 형태 또한 구축형과 구독형으로 다양하다.

특히 AI for Text 사업의 코난 서치는 대용량 데이터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검색 정확도와 빠른 색인 속도를 수행해 2021년 기준 공공기관 시장 점유율이 51%에 도달하며 제품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김영섭 코난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업무환경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코난테크놀로지는 독자 기술로 차별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해 스마트워크를 실현하며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코난테크놀로지의 총 공모주식수는 120만주, 희망 공모가 밴드는 2만1000~2만5000원이다. 6월 21~22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 후, 27~28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7월 초 코스닥 상장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청주 SK뷰 자이’ 청약경쟁률 20대1 기록

SK에코플랜트-GS건설

봉명1구역 재건축... 29일 결과 발표

SK에코플랜트와 GS건설이 충북 청주 흥덕구 봉명1구역 재건축으로 선보이는 ‘청주 SK뷰 자이’가 전 타입 1순위 해당지역에서 청약 마감됐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주 SK뷰 자이 1순위 해당지역 청약 결과 54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 979건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평균 20.2대 1을 기록했고 타입별 최고 경쟁률은 52.5대 1을 기록한 101㎡가 치지했다.

단지는 전용면적 59~101㎡, 총 1745가구 규모다. 인근에는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이 위치한 청주일반산업단지가 있다. 봉명초·중등학교, 청주고등학교 등도 위치해 있다.



‘청주 SK뷰 자이’ 조감도. /SK에코플랜트

청약 당첨자는 오는 29일 발표한다. 당첨자 계약은 내달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청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